

경제주평

- 미국發 긴축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 미국 통화정책 점검과 시사점

목 차

■ 미국發 긴축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 미국 통화정책 점검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미국 통화정책 여건 점검	2
3. 미국 적정금리 전망	5
4. 시사점	7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이예람 선임연구원 (2072-6240, yr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미국발 긴축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 미국 통화정책 점검과 시사점

■ 개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전환기에 진입한 가운데, 6월 FOMC는 미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2024~2025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던 세계 주요국들은 2026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자 통화정책을 다시 긴축으로 선회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전환기에 미 연준 케빈 워시(Kevin Warsh) 신임 의장이 취임(5.22)했으며, 이후 처음 열린 6월 FOMC에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하였다. 하지만 FOMC의 정책결정문, 점도표, 경제전망(SEP) 전반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강화하는 매파적(hawkish) 색채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6월 FOMC 회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 통화정책 여건 및 적정금리 수준을 검토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미국 통화정책 여건 점검

① 기준금리

미 연준은 6월 FOMC에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3.50~3.75%)하였으나, 점도표 분포 상향 및 완화 편향 문구 삭제 등으로 매파적 색채를 드러내었다. 기준금리 경로가 연내 1회 인하에서 1회 인상으로 전망이 전환되었으며, 지난 4월 회의(8.4)와 달리 12:0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결정되었다. 한편,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도 인상에 무게를 두며 6월 FOMC 점도표와 대체로 부합한다.

② 물가

미 연준은 에너지 등 공급 충격을 반영하여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큰 폭 상향하였다. 2026년 근원 물가(PCE) 전망이 3.3%(+0.6%p), 헤드라인 물가 전망이 3.6%(+0.9%p)로 상향 조정되고, 물가안정목표(2%) 복귀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이연되었다. 최근 미국-이란의 양해각서 체결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유가 충격의 2차 전이 및 AI 관련 비용 압력 등 잔존하는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③ 성장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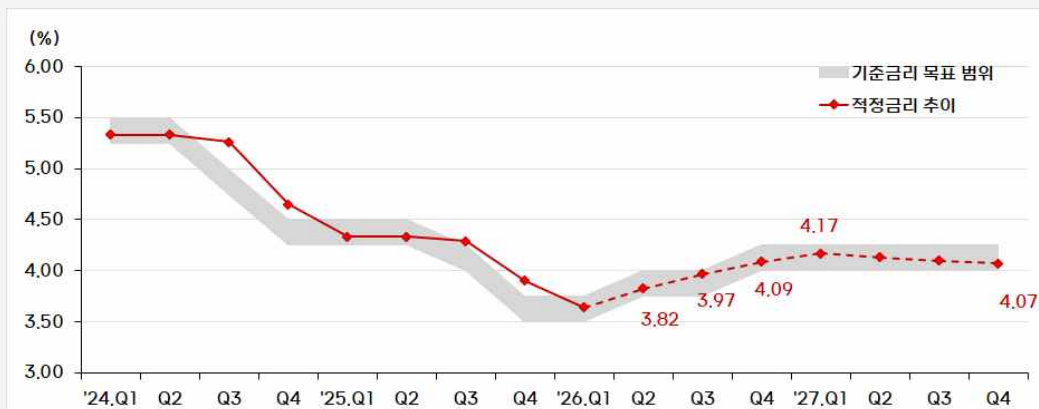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시장도 완전 고용 근방에서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하향(3월 2.4%)되었으나, 미 연준은 생산성과 자본투자의 강세 속에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 중이라고 평가했다. 2026년 실

업률도 4.3%로 자연실업률(4.2%)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6월 고용 지표 둔화로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되었으나, 일시적 변동이라는 평가도 있어 향후 고용 추세에 따라 금리 인상 시점이 재조정 될 것으로 해석된다.

■ 미국 적정금리 전망

적정금리 추정을 통해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검토한 결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2분기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은 3.82%로 현재 기준금리 목표치(3.50~3.75%)를 상회했으며, 적정금리의 추세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향후 적정금리 수준은 3분기 3.97%, 4분기 4.09%로 추정되어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6월 FOMC 점도표와 부합했다. 한편 물가가 점차 안정되면서 적정금리 수준이 2027년 1분기 4.17%로 정점을 기록한 후에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부터 적정금리 수준이 다시 낮아지는 만큼, 미 연준은 향후 예비적으로 기준금리를 1회 인상 후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실효연방기금금리 및 적정금리 전망치 추이 >



자료 : FRED,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6년 1분기까지는 실효연방기금금리, 2026년 2분기 이후는 적정금리 전망치.

■ 시사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미국발 긴축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실물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강달러 현상이 촉발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기업 부문의 신용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미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실물경기 하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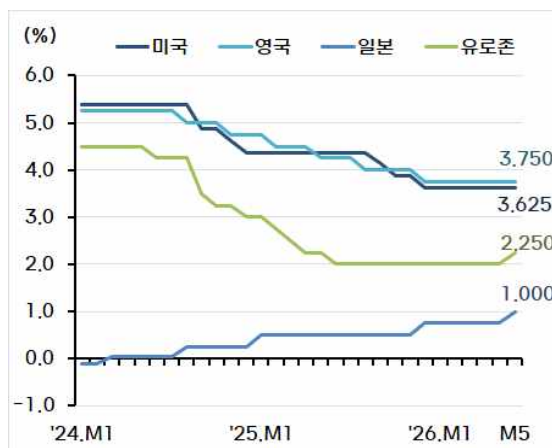
1. 개요

○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전환기에 진입한 가운데, 6월 FOMC는 미국 통화정책 기초의 변화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됨

- 2024~2025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던 세계 주요국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자 기준금리 동결 및 인상으로 선회
 - 최근 ECB(6.11)와 일본(6.16)이 각각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가운데 영국(6.18)은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
 - 미국도 전쟁 발발 직후 2026년 3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오름폭이 확대되며 5월에 4.2%를 기록함에 따라 긴축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
- 미 연준은 케빈 워시(Kevin Warsh) 신임 의장 취임(5.22) 직후 열린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회 연속 3.50~3.75%로 동결
 - 다만 FOMC의 정책결정문, 점도표, 경제전망(SEP) 전반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강화하는 매파적(hawkish) 색채가 확인
 - 3월 FOMC 회의 대비 기준금리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성장 및 고용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본 보고서는 6월 FOMC 회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통화정책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금리 수준을 검토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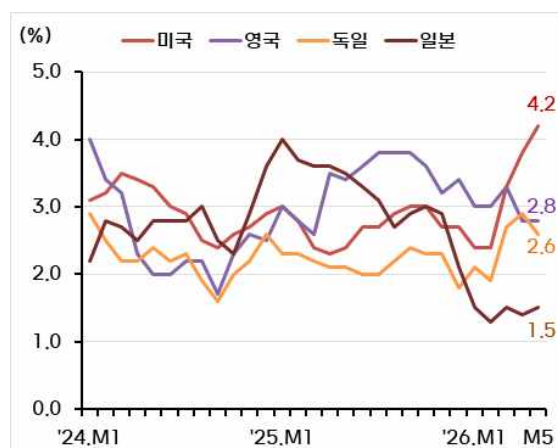
<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



자료 : BIS.

주 : 미국은 중간값 기준.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자료 : Bloomberg.

2. 미국 통화정책 여건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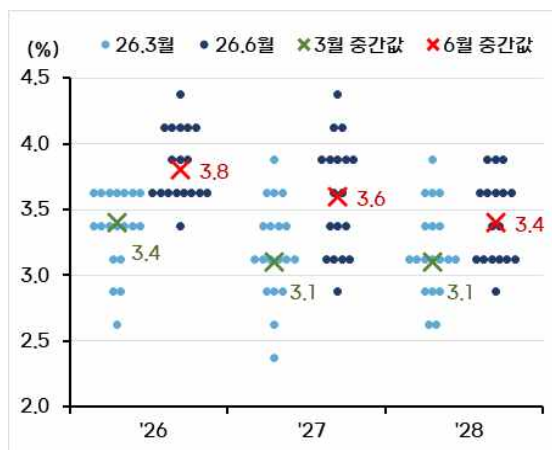
① 기준금리

○ 미 연준은 6월 FOMC에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3.50~3.75%)하였으나, 점도표 분포 상향 및 완화 편향 문구 삭제 등으로 매파적 색채를 드러냄

- 기준금리 경로가 상향되며 연내 1회 인하에서 1회 인상으로 전망이 전환됨
 - 점도표를 제출한 18명 중 9명(3월 0명)이 연내 최소 1회 인상을 전망하며 2026년말 중간값이 3.8%로 상향(3월 3.4%), 2027~28년말 전망도 상향 조정됨
- 4월 회의(8:4)와 달리 매파 위원들의 요구를 관철하며 12:0 만장일치로 결정
 - 지난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했던 매파 3인(Hammack, Kashkari, Logan)이 문제 삼은 완화 편향(easing bias) 문구¹⁾도 정책결정문에서 삭제됨
-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도 인상에 무게를 두며 6월 점도표와 대체로 부합
 - FedWatch(7.3 기준) 상 연내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22.2%에 그친 반면, 최소 1회 이상 인상 확률이 77.8%, 2회 이상 인상 확률도 약 36%를 차지
 - 다만, 유가 하락 및 6월 고용 둔화로 최근 동결 확률이 13.7%(6.18 기준)에서 22.2%로 상승

※ WTI(\$/bbl) : (6.17) 76.79 → (6.24) 70.34 → (7.2) 68.69

< 미 연준 점도표 비교 >



자료 : FOMC.

< FedWatch 미국 기준금리 확률(7.3 기준) >

FOMC 일정	기준금리 수준 (상단 기준, %)					동결 확률 (%)	인상 확률 (%)
	3.75	4.00	4.25	4.50	4.75		
'26.07.29	81.8	18.2	0.0	0.0	0.0	81.8	18.2
09.16	46.8	45.4	7.8	0.0	0.0	46.8	53.2
10.28	36.0	45.7	16.5	1.8	0.0	36.0	64.0
12.09	22.2	42.0	27.7	7.4	0.7	22.2	77.8

자료 : CME Group, FedWatch T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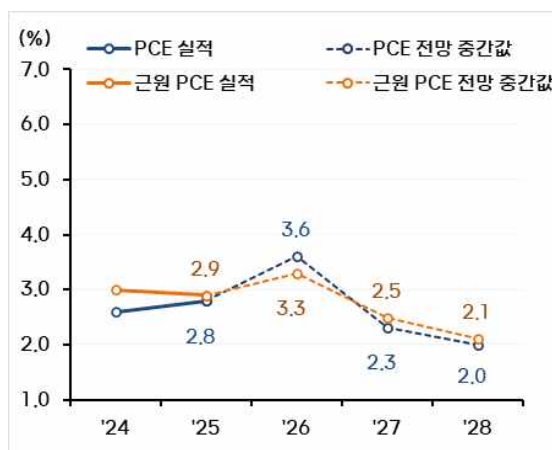
1) 2024년 9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후 금리 인하 예고의 상징적 표현(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으로 사용됨

② 물가

○ 미 연준은 에너지 등 공급 충격을 반영하여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큰 폭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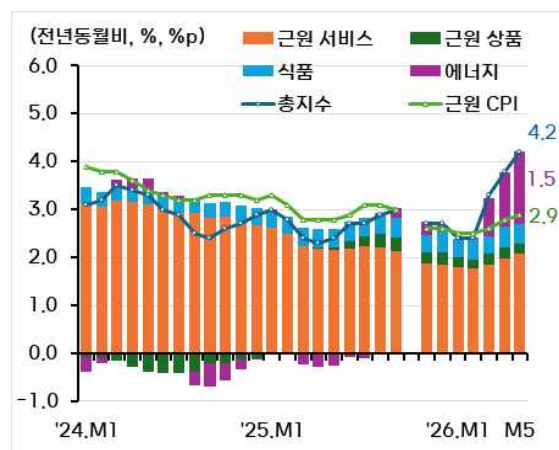
- 2026년 근원 물가(PCE) 전망이 3.3%(+0.6%p), 헤드라인 물가 전망이 3.6%(+0.9%p)로 상향 조정되고, 물가안정목표(2%) 복귀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이연
 - 헤드라인 물가는 2027년 2.3%로 비교적 빠르게 완화되나, 근원 물가는 2027년 2.5%, 2028년 2.1%로 더디게 둔화하며 끈적한(Sticky) 물가 가능성을 시사
- 최근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점차 약화될 소지
 - 5월 헤드라인 CPI가 4.2%까지 상승하였으나, 에너지의 기여도가 1.5%p로 상승을 주도한 만큼 유가 하락 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유가 충격의 2차 전이 및 AI 관련 비용 압력 등 잔존하는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
 - 에너지가 유발한 공급측 비용 압력이 근원 서비스로 2차 전이된다면 근원 CPI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한편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²⁾가 컴퓨터 장비, 전력 등의 가격을 올리며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 PCE 실적치 및 전망치 >



자료 : FOMC.

< 미국 CPI 기여도 추이 >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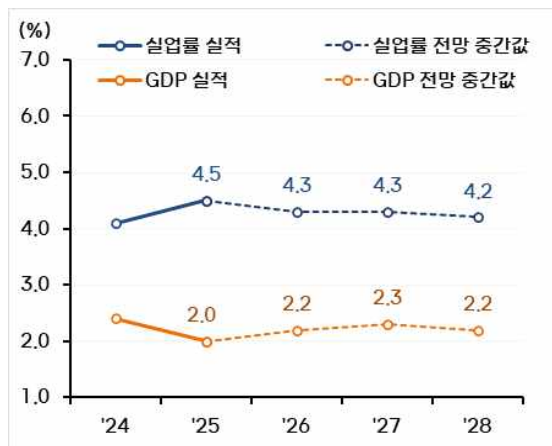
주 : '25.10월은 정부 셋다운으로 부재.

2)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2026년 AI 관련 자본 지출(CapEx) 전망은 8,140억 달러로 2025년(4,490억달러)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6.6).

③ 성장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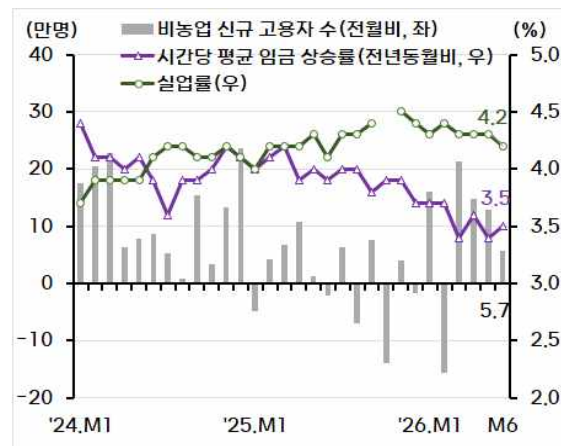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시장도 완전 고용 근방에서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2.2%로 하향(3월 2.4%)되었으나, 미 연준은 생산성과 자본투자의 강세 속에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 중이라 평가³⁾
 - 2026년 실업률 전망치는 4.3%로 자연실업률(4.2%)에 근접한 수준이며, 미 연준은 고용 증가가 노동력 증가 속도와 부합한다며 4월 대비 긍정적으로 진단⁴⁾
 - 이는 고용시장의 희생 없이 고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되어, 워시 의장이 고용과 물가 사이 “잔인한 양자택일(cruel choice)”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을 뒷받침
 - 한편, FOMC 이후 발표된 6월 고용지표 둔화로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
 - 비농업 신규 고용은 5.7만명으로 예상치(Bloomberg 11.3만명)를 큰 폭 하회, 실업률은 4.2%로 하락하였으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
 -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6월 3.5%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둔화세를 지속하며 임금발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적인 상황
 - 다만, 6월 고용 둔화를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향후 고용 추세에 따라 금리 인상 시점이 재조정 될 것으로 해석

< 미국 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 실적치 및 전망치 >



자료 : FOMC.

<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실업률 추이 >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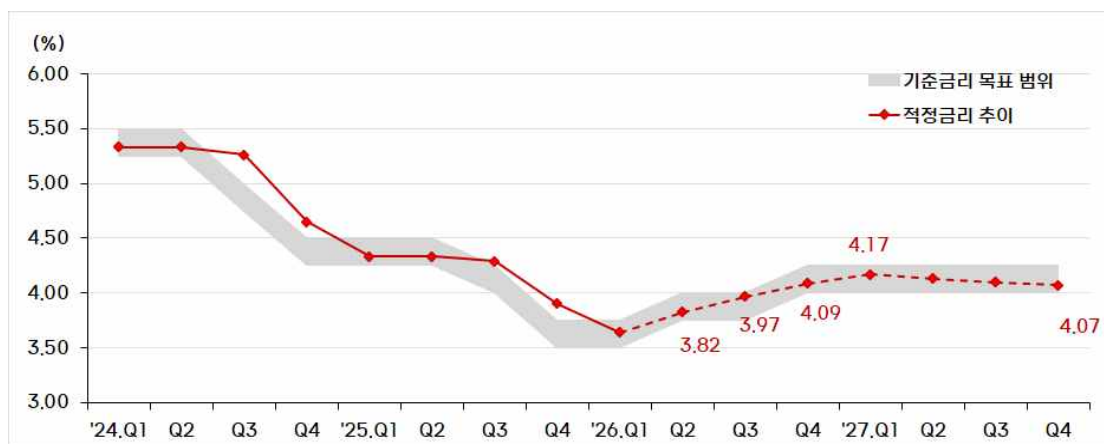
3) “Economic activity is expanding at a solid pace ... Productivity growth and capital investment are strong.”

4) 4월 “Job gains have remained low ...” 에서 6월 “Job gains have kept pace with the workforce.” 로 변경됨.

3. 미국 적정금리 전망

- 적정금리 추정을 통해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검토한 결과,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테일러 준칙을 활용하여 적정금리 수준을 추정한 현대경제연구원(2022, 2025)⁵⁾의 분석 방법을 준용함
 - 미국의 적정금리 추정 결과, 미국-이란 전쟁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6년 2분기부터 적정금리의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 2026년 2분기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은 3.82%로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치인 3.50~3.75%를 상회함
 - 올해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은 2026년 3분기 3.97%, 4분기 4.09%로 추정되어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6월 FOMC 점도표와 부합
 - 추정된 2026년 4분기 적정금리 수준은 6월 FOMC 점도표 상 18명의 위원 가운데 약 6명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4.00~4.25% 5명, 4.25~4.50% 1명)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실효연방기금금리⁶⁾ 및 적정금리 전망치 추이 >



자료 : FRED,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6년 1분기까지는 실효연방기금금리, 2026년 2분기 이후는 적정금리 전망치.

5)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2-08 (현대경제연구원, 2022.11), 우호적인 통화정책 여건 기대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필요, 경제주평 25-12 (현대경제연구원, 2025.07).

6) 실효연방기금금리는 예금기관이 연방기금을 서로 하루 동안 거래할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 목표 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관리하는 1일물 단기시장금리.

- 2027년부터 물가가 점차 안정되면서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은 2027년 1분기 4.17%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27년부터 중동전쟁발 공급충격 완화 및 역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함에 따라 적정금리가 2027년 1분기 4.17%에서 4분기 4.07%로 다소 하향
 - 2027년부터 적정금리 수준이 다시 낮아지는 만큼, 미 연준은 향후 예비적으로 기준금리를 1회 인상 후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적정금리는 정책 결정의 참고 지표일 뿐, 실제 기준금리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참고 > 테일러 준칙을 이용한 적정금리 수준 추정 방법론

- 현대경제연구원(2022, 2025)은 적정금리 추정을 위해 Borio and Lowe(2004)⁷⁾ 방식의 테일러 준칙을 활용

- Taylor(1993, 1999)는 물가안정을 고려한 인플레이션갭과 경제성장을 고려한 산출갭에 임의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통화정책 운용의 준칙을 제시함
- Borio and Lowe(2004)는 과거 금리 경로와 인플레이션갭 및 산출갭의 가중치를 추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적정금리 수준을 구함

- 미 연준은 통화정책의 목표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추정된 계수값을 활용하여 적정금리 수준을 도출⁸⁾

$$i_t - \pi_t^e = r^n + \alpha(\pi_t^e - \pi_t^*) + \beta(y_t - y_t^*)$$

$$r_t = (1 - \rho)r_t^* + \rho r_{t-1} + \epsilon_t$$

※ i_t 는 실효연방기금금리, r^n 는 장기실질자연이자율, π_t^e 는 기대인플레이션율, π_t^* 는 적정물가상승률, y_t 는 성장률, y_t^* 는 잠재성장률, r_t 는 적정정책금리.⁹⁾

- 본 분석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 전망치(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를 활용하여 인플레이션갭과 산출갭 예상치를 구한 후 적정금리 전망치를 제시

7) Borio and Lowe (2004). Securing sustainable price stability: should credit come back from the wilderness?. BIS Working Papers No.157.

8) 본문의 적정금리 수준은 현대경제연구원(2022)에서 추정한 계수값(산출갭 0.85, 인플레이션갭 0.36)을 활용하여 계산.

9) 미국의 장기실질이자율은 Laubach-Williams(2003)과 Holston-Laubach-Williams (2017) 추정치를 사용하며, 적정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치인 2.0%를 설정.

4. 시사점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미국발 긴축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실물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미 연준의 대파적 기조 전환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변화는 시장의 정책 경로 예측을 어렵게 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게 되며,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수준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강화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약화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음
 - AI 과잉투자 우려와 자산시장 고평가 이슈 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은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위험자산에 대한 재평가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위험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촉발될 경우,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한 국내 증시는 더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음
- 정책당국은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 최근 제2금융권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유동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비은행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국내 및 해외에서 출시한 국내 레버리지 투자 상품 대중화 등 변화된 주식시장 여건에 맞는 시장 안정화 방안 및 개인 투자자 보호 대책도 사전에 마련해야 함

둘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강달러 현상이 촉발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만으로도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으며,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고환율에 대한 시장 불안은 커질 수 있음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글로벌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강달러 압력 확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촉발하여 환율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
- 외환시장 대응은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기보다 환율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고, 일방향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우리 통화당국도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미 연준보다 선제적인 정책 결정을 한다면 외환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당국은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유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사전에 조율하여 외환 부문의 안전판을 확충할 필요

셋째,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기업 부문의 신용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은 장기채 금리 동조화 현상 등을 통해 국내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가계·기업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 차주 등 금리 상승에 취약한 부문의 신용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
 - 가계 부문에서는 취약 차주의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유도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함
 - 기업 부문에서는 한계기업의 차환(roll-over) 위험과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도 점검하고, 부실 우려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정리와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

넷째, 미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실물경기 하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정책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내수경기 하방 압력도 증가할 우려가 존재
-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 중심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체질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공급 및 설비투자·AI 전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을 뒷받침할 필요
 - 이와 함께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 대한 사업재편·구조조정 유도를 병행하여 내수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함께 제고해 나가야 함
- 한편, 미국이 긴축국면에 돌입할 경우 글로벌 수요도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 유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함
 - 현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구조의 특성상,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 업황 변동으로 수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품목·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가 요구됨
 -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향후 소비·투자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산업재뿐 아니라 화장품·음식료품 등 최종 소비재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HRI**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이예람 선임연구원 (2072-6240, yrlee@hri.co.kr)